도로명 부여 현황과 개선 방향

김동호, 김재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물류공간정보연구부 스마트포스트인터랙션연구실

e-mail:kdh@etri.re.kr

The status and improvement on road name assignment

Dong-Ho KIM, and Jae-Chul KIM
Smart Post Interaction Sectio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요 약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본격 사용 중에 있으며 점차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도로명은 행정구역과 함께 사용되며 거점을 표현하는 기준점으로서 도로명의 간결성은 우편/물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입력하는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정의된 도로명 부여 규칙을 토대로 실제 사용 중인 도로명에 대해 살펴보고 도로명 주소 입력 간편화 등의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1. 서론

주소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을 가리킨다.'[1]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 중이다.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이다.'[2]

본 논문에서는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부여된 도로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사용자 관점에서 도로명 주소 입력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3]은 도로명주소법에 대한 행정자치부령으로서 시행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도로명의 부여와 변경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의하고 도로별 구분기준으로 대로, 로, 길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4]는 지명에서 영문표기에 대한 정부지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5]에서는 반론으로 정부지침의 적합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 사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연구들 중에서 [6]은 새 우편번호 체계와 이를 토대로 하는 검색 시스템에 대한 소개하고 소형통상구분기에서 적용된 한글주소 인식기술 및 구분계획 관리 기술의 일부를 소개하였다. [7]에서는 새 우편번호에 대한 구분계획 관리 기술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으며, 집배구 코드에 대한 정의와 이를 기반으로 소형통상구분기에서 활용되는 구분계획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물 접수에서 필수 항목인 수취인 도로명 주소 입력에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8]에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서는 도로명주소 규정과 표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도로명주소 규정에 근거로 실제 사용 중인 도로명 자체에 대한 검토와 주소입력 간편화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3.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

3.1 부여 규칙

도로명주소의 부여방법[2]에 따르면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하며 도로별 구분기준으로 명사에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한다. 이때 '-대로/-로'에서 분기하는 '-길'에 대한 사례로서 (1) 일련번호로 부여하거나, (2)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3)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분기되는 '-길'에 대해서 '-가길', '-안길' 등을 부여할 수 있다.

3.2 검토 사항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도로명의 기본유형으로 '-대로', '-로', '-길'이 있으며, 도로간의 분기에 대해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대로/-로/-길' 등의 유형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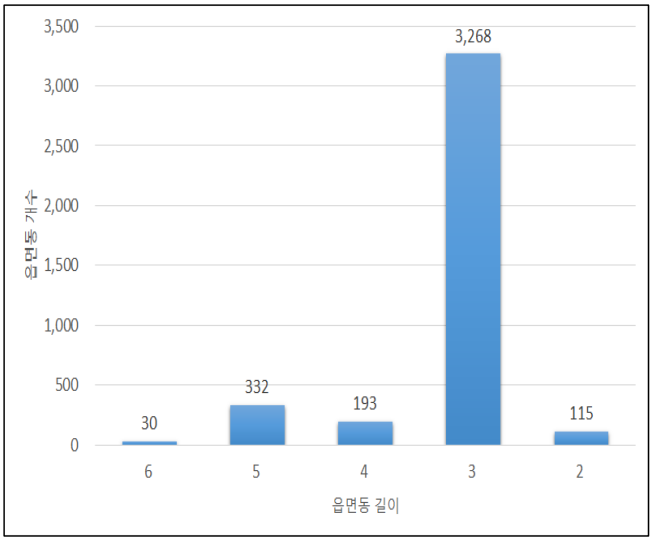
하지만 도로명 부여규칙에 기반을 두고 부여된 실제 도로명을 분석하면 <표 1>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형태를 가지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로/-로'에서 분기된 '-길'에 대해 서수와 기수표현이 혼용되고 있어 도로명을 사용할 때 명칭의 정확성에 혼란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도로명 유형으로 정의된 '-대로', '-로', '-길'과 같은 접미사를 벗어난 '-개'와 '-리'등이 도로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이 추가될수록 사용자와 시스템에서 도로명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발생할 수 있다.

<표 1> 도로명 부여 대표유형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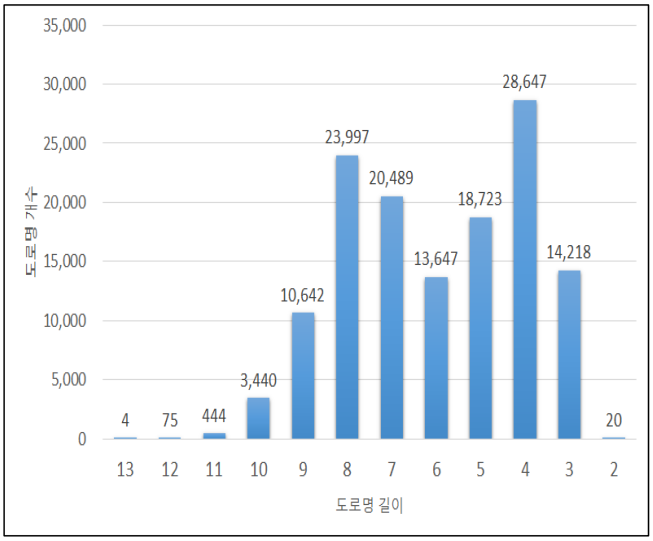
유형	예제	비고
-대로	가락대로	
-대로-길	간호대로1길	간호대로
-대로-가길	경희대로1가길	경희대로
-대로-번길	가락대로1433번길	가락대로
-대로-번가길	가락대로1433번가길	가락대로1433번길
-대로-번안길	강릉대로159번안길	강릉대로159번길
-대로-안길	강남대로101안길	강남대로101길
-로	마음로	
-안로	마음안로	마음로
-안-로	마음안1로	마음안로
-로-길	1공단로2길	1공단로
-로-가길	가마산로12가길	가마산로12길
-로-번길	1순환로1253번길	1순환로
-로-번가길	1순환로1384번가길	1순환로1384번길
-로-번안길	가림로201번안길	가림로201번길
-로-안길	가좌로2안길	가좌로2길
-로-동길	무전로2동길	무전로2길
-길	1공단1길	
-안길	갓바위안길	갓바위길
-안-길	갈골안1길	갈골안길
-가길	경희궁1가길	경희궁1길
-바깥길	연기바깥길	연기길
-윗길	금산3윗길	금산3길
-아랫길	마평아랫길	마평길
-길-길	가사길1길	가사길
-길-번길	가내길139번길	가내길
-길-번가길	구봉북길4번가길	구봉북길4번길
-길-번안길	골말길30번안길	골말길30번길
-길-안길	백길안길	백길
-개	계변고개	
-리	가구거리	

도로명주소 체계는 지번주소 체계와 달리 최소 단위의 행정구역을 '-읍/-면/-동'과 같은 영역에서 '-대로/-로/-길'과 같은 선으로 변형하고 지역화/세분화하였다. 이로 인해 지점/주소의 기준점이 구체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개체수가 증가하여 명칭의 부여 개수도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

(그림 1)과 같이 지번주소 체계에서 '-읍/-면/-동'의 길이는 2~6으로 분포가 협소하고, 최빈도 글자는 3글자로서 짧고 간결하며, 4글자 이내가 전체(3.9천개)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그림 2)와 같이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은 2~13로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으며, 최빈도는 4글자이지만 6글자 이내가 전체(13.4만개)의 5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7글자 이상은 수기 또는 컴퓨터 입력시 많은 입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입력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림 1) 읍면동 길이별 부여 개수



(그림 2) 도로명 길이별 부여 개수

4. 주소부여 및 처리기술 방향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부여되어 사용 중인 13.4만여 개의 도로명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계약서와 같이 오탈자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에 대응하는 단위로 사용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3.9천여 개로 도로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수가 작고, 각 명칭의 길이도 짧은 특징이 있다.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도로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도로명부여 규칙을 지정하였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 부여된 도로명이 6글자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기로 작성하거나 자판으로 입력하는 경우 입력을 위한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도로명칭의 복잡도에 따른 오입력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명부여 규칙에서 도로명 길이 제한 등을 포함하는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로명 규칙에서는 도로명에 대해 '-로', '-길'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부여된 도로명에는 '-리', '-개' 명칭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일반 사용자가 도로명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시스템에서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추가적인 정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체계에서 분기된 하위 도로에 상위 도로명을 포함할 수 있는데, 분기가 반복될수록 도로명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도로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간결한 도로명 부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여된 도로명을 우편주소 입력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검색 및 입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기술로서 도로명에 대응하는 도로명주소가 방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도로명 사전을 통하여 보다 최소화된 결과로부터 입력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주소입력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및 장애우를 위한 주소 검색 및 입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검색엔진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도 향후 추진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

5. 결론

우리나라의 주소체계에서 급속한 도시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물류비 절감 등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도로명주소 체계는 본격 시행이후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명주소의 부여규칙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부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로명 부여 규칙에 따라 실제 도로명의 길이가 이전의 읍면동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졌으며 향후 도로명의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로명 부여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한 우정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임(과제번호 R0118-16-1001)

참고문헌

[1] ㈜네이버, "**네이버사전**", dic.naver.com.

[2]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www.juso.go.kr.

[3]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16년 1월.

[4] 김선일, "**[시론] 지명 영문표기, 유엔정책 따라야**",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3263.html, 2015년 8월.

[5] 곽중철, "**[왜냐면] 지명 영문표기 기준, 유엔권고와 상충 안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06094.html, 한겨레신문, 2015년 8월.

[6] 김동호, 윤대섭, 김주완, 박진상, "**새 우편번호 기반의 소형통상 우편물 구분처리 기술 동향**," 주간기술동향., ICT 융합기술 R&D 특집, 제30권, 제5호, pp. 89-98, 2015년 10월.

[7] 김동호, 오천인, 한경수, 윤대섭, "**새 우편번호용 소형통상 구분계획 관리 시스템**", 제17회 전자정보통신 학술대회(CEIC) 2015, pp. 136-138, 2015년 12월.

[8] Dong-Ho KIM, and Jae-Chul KIM, "**An efficient technique for address data input simplification based on the address dictionar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T Convergence(ICTC) 2016, Oct., 2016.